

# 글로벌네트워크서비스의 現況과 展望

主任研究員 李 炯 教

국제통신의 주요고객인 초국적기업들은 이제 자신의 네트워크를 스스로 구축하는 것보다는 전문통신회사에 맡기는 것이 보다 더 효율적이라는 인식을 갖기 시작하고 있다. 이러한 수요의 변화에 대응하여 AT&T를 비롯한 세계유수의 통신기업들은 사업자간의 활발한 제휴를 통하여 소위 「네트워크 아웃소싱」서비스를 제공하려 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 새로운 시장을 둘러싼 세계 주요통신사업자들의 치열한 경쟁을 살펴보고 있다.

## 目 次

- |                     |                             |
|---------------------|-----------------------------|
| I. 머리말              | 1. World Source(AT&T, KDD)  |
| II. 國際專用線(假想網)再販賣   | 2. GNS / Syncordia(BT, MCI) |
| III. 글로벌네트워크서비스의 現況 | IV. 向後展望                    |

## I. 머리말

이제 바야흐로 세계 국제통신시장은 초국적 기업들의 수요형태 변화와 새로운 대규모 사업자의 출현으로 과거와는 전혀 다른 경쟁환경에 직면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국제통신망을 구축하는 기업들은 각 거점의 사업자와 전용선계약을 하여 통신기기의 조달, 기기의 인증절차, 설치장소의 확보, 설치, 개통시험, 운용보수를 독자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되었으나 이제는 이러한 작업을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하나의 통신회사가 대행해주는 소위 「네트워크 아웃소싱」<sup>1)</sup> 사업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1) 이것은 초국적기업들의 국제망을 하나의 창구(One-stop Shopping), 자유도가 높은 지불방법(One-stop Billing), 운용 보수 감시를 통합적으로 실시(One-stop Management)하는 것이다.

AT&T는 지난 5월말에 KDD 및 싱가포르 텔레콤과 「World Parteners」라는 그룹을 결성하였고, BT는 6월초순에 MCI 와 손잡고 「GNS /Syncordia」를 출범시켰다. 이들은 각각 다국적기업을 대상으로 국제음성·데이터서비스를 「원스톱·쇼핑」에 의해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AT&T, BT이외에 유럽에서도 프랑스테레콤, DBP텔레콤이 50%씩 출자하여 「Eunetcom」을 설립하였고, 네덜란드 PTT텔레콤, 스웨덴텔레콤, 스위스PTT등이 제휴하여 「Unisource」를 설립하였다.<sup>2)</sup> 이러

〈表 1〉 세계 글로벌 네트워크 현황

운용체 명	Eunetcom	Global VPN	GNS / Syncordia	Infonet	Unisource	WorldSource
AT&T(미국)						0
Belgacom(벨기에)				0		
BT(영국)			0			
C&W(영국)		0				
DBP Telekom(독일)	0			0		
FT(프랑스)	0			0		
HongKong Telecom		0				
KDD(일본)				0		0
한국통신(한국)						0
MCI(미국)			0	0		
PTT Telecom(네덜란드)		0		0	0	
ST(싱가폴)				0		0
Sprint(미국)		0				
Swiss PTT(스위스)				0	0	
Telefonica(스페인)				0		
Televerket(스웨덴)				0	0	
Telstra(호주)				0		0
Unitel(캐나다)		0				0

資料 : Communications Week(93. 6.14)

2) 최초의 예는 88년에 AT&T, BT, KDD의 3사의 「ABK연합」이 제공하는 「Account Management Plus Service」였다. 이후 프랑스 텔레콤이 참여하여 91년에 「JNI」(Joint Network Initiatives)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이와같은 제휴관계는 사업자간의 개별협정을 통해서 이루어져서 애매한 점이 많았다. 따라서 이러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조직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공동출자에 의한 운영회사를 설립하든가, 아니면 종합적인 지원조직을 설립하는 방식을 취하게 되었다. 전자의 경우가 Syncordia, Eunetcom, Unisource이고 World Parteners, GVPN, FNA가 후자의 경우이다.

한 세계 글로벌네트워크들을 정리한 것이 <表 1>로 현재 약 6개 정도가 구체화되고 있다.<sup>3)</sup>

현재 2,000~3,000개사에 이르는 초국적 기업간에는 기업내 통신망의 아웃소싱화가 추진되는 한편, 기업측은 세계 어디에서나 균질의 전기통신서비스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기를 원하고 있다. 이들 기업의 연간 전기통신관계 지출은 100억\$을 넘고 있으며 앞으로 글로벌한 전기통신서비스시장은 급속히 발전하여 그 성장율은 연간 12%로 2000년에는 250억\$ 규모의 시장이 되리라 보여지고 있다. AT&T 등 세계의 주요 전기통신서비스 사업자는 장래 글로벌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잠재력이 큰 이 시장에서의 승부가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따라 최근 이들 전기통신사업자는 글로벌서비스시장을 목표로 한 서비스를 개발하는 한편, 초국가적인 제휴를 통하여 글로벌서비스의 윈스톱쇼핑서비스를 실현시키려하고 있다.

우선적인 대상은 다국적기업의 40%가 집중되어 있는 최대시장인 미국 (영국은 13%)이다. 이를 위해 BT는 신코디아를 설립하는 등, 수 년동안 미국시장 참여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으나,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올리지 못했다. 4월에는 미국의 현지법인(BTNA)을 통해 미국에서 국제전용망서비스 제공을 FCC에 신청했으나 아직 허가되지 않고 있다. 한편, AT&T는 국제전기통신시장에서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일찍부터 글로벌서비스의 강화를 꾀하고 있으며, 영국시장 참여를 위해 영국 DTI에 신규사업신청을 제출해 놓고 있다. MCI도 글로벌서비스시장에서의 지위강화를 노리고 있다.

이하에서는 국제전용선 재판매 문제를 둘러싼 미·영 양국의 대립과 통신업체간의 대표적인 제휴사례를 통하여 「슈퍼 캐리어」로 등장하려는 통신업체들의 치열한 경쟁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3)이외에 「C & W 중심의 그룹」(스프린트, 머큐리 (영국), 홍콩텔레콤, 텔레그로브 (캐나다), 유니텔 (캐나다) 및 텔스트라 (호주))과 「Globand」(Global Bandwidth on Demand Consortium) (벨가컴 (벨기에), 텔레덴마크, 텔레콤 핀란드, 헬싱키 전화회사, PTT 텔레콤네덜란드, 노르웨이텔레콤, 스위디쉬텔레콤, 스위스 PTT, 머큐리, 홍콩전화회사 및 C & W (뉴욕의 현지법인))등도 있다.

## II. 國際專用線(假想私設網) 再販賣

국제 가상사설망서비스시장의 규모는 1993년에 10억달러, 1996년에 50억달러에 달하고 향후 가장 발전가능성이 큰 시장의 하나이다. 1991년 기준으로 미영간의 국제 통화량은 12억분에 이를 정도로 유럽·미국간의 통화량이 가장 크기 때문에 세계 유수의 전기통신시장인 미국 혹은 영국에서 공중통신업자의 면허를 얻어 국제 원스톱 쇼핑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2000년까지 전세계에 몇 개회사밖에 남지 않을 「슈퍼 캐리어」가 되기 위해서는 미국과 유럽을 근거로 하는 다수의 초국적기업대상의 글로벌 고도전기통신서비스시장을 차지해야한다. AT&T 및 BT 모두 이전부터 이 시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BT의 자회사인 BT North America(BTNA)는 금년 3월, 미국의 기업에 엔드 투 엔드의 포괄적인 국제 가상망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미국의 FCC에 국제교환 서비스, 국제회선의 재판매를 인정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와같은 BT의 움직임에 대응하여 미국의 AT&T는 4월 중순 미국내와 동일한, 다국적기업대상의 국제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계획을 발표함과 동시에, FCC와 정부가 영국에서 동등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BT의 신청을 보류하도록 요청하는 등 신경전을 전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BTNA의 申請內容

BTNA는 미국내에서 글로벌한 규모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공중망의 특징을 갖는 전용망에 의해 엔드 투 엔드의 음성, 화상 및 데이터의 국제고도서비스를 국제사설망서비스에 의해 제공한다. FCC의 인가를 얻는 데는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BT는 금년말에는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BT가 미국시장에 진출하려는 것은 영국은 세계에서 가장 개방된 시장으로 국내의 전기통신경쟁이 격화되어 국외에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

이다. BT의 계획은 작년부터 BT내부에서 검토하고 있었던 「사이클론」이 기초가 되고 있는데 이는 타사와 제휴하지 않고 자신의 시설과 임대한 회선에 의해 구축하는 글로벌망 구상이다. 동사는 이미 미국내에 노던 텔레콤의 교환기를 설치하고 있는데 미국내에서는 시내전화회사 혹은 장거리전화회사의 회선을 임대할 계획이고 자신의 시설을 부설할 계획은 없다. 또한 BT는 호주, 캐나다, 프랑스 등 6개국에도 FCC에 제출한 신청과 동일한 신청을 제출하기로 하는 한편, 미국, 캐나다, 독일 등 세계 20개지역에 국제교환기를 설치한 센터를 개설할 계획이다.

BT는 미국에서 이와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음의 세 가지 재판매<sup>4)</sup> 서비스에 대해서 FCC의 인가를 구하였다. 미국은 이 3가지 서비스중 제3의 공중망과 한쪽 혹은 양쪽으로 접속하는 전용선의 재판매, 소위 국제단순재판매는 상호주의 원칙에서 영국기업에게는 인정하지 않는다.

FCC는 1991년에 기본전기통신서비스제공을 위한 전용선의 재판매를 인정하고 있는데 상호주의 입장으로부터 미국의 재판매사업자에 대한 시장개방과 규제완화를 실시하였던 캐나다에 대해서만 1992년에 미국과 캐나다간에 공중망과 접속하는 전용선의 재판매를 인가하고 있다. 한편, 영국 무역산업성은 국제회선의 단순재판매를 자국과 동일한 개방정책을 취하고 있는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및 스웨덴의 3개국에 이를 인정하고 있다. 또한 자신의 시설에 의한 국제서비스제공은 양국모두 이미 수 개의 회사로부터 영업신청이 제출되어 있으나 아직 인가되지 않고 있다.

BT는 미영간의 회선에 대해서도 비지배적 통신업자로서 취급되는 것을 원하고 있으나 FCC가 작년 10월에 행한 국제통신업자에 관한 규제완화에서도 BT가 영국에서 여전히 지배적 사업자이기때문에 미영간의 국제회선에 한해 지배적 통신사업자로서 취급되고 있다. 그러나 BT는 이 사업을 수행하는 BTNA의 영국내 공중망과 접속요건이 영국내의 타 경쟁통신업자와 완전히 동일하고 국제통신업자로서 머큐리도 있기 때문에 국제통신에서 지배적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이유로

4) 국제서비스제공에 필요한 미국의 각통신사업자의 국제교환서비스,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영국, 독일 등 7개국을 대상으로 공중망과 접속하지 않는 국제전용선, 「공-전-전」 혹은 「공-전-공」회선에 의한 영국 및 캐나다의 공중망과 접속하는 국제전용회선

비지배적통신업자임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AT&T는 BT가 미국에서 경쟁시장에 참여할 때와 완전히 동일한 조건하에 영국시장에서 경쟁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AT&T는 BT와 마찬가지로 영국시장에서 다국적기업대상의 전용회선및 공중회선에 의한 VPN으로 고도의 글로벌 기업내 통신망을 제공하려는 계획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프랑스텔레콤과 DBP텔레콤의 기업내 통신망을 제공하는 합병기업, 「Eunetcom」과 제휴해서 엔드 투 엔드의 국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교섭움직임도 있었다.

AT&T로서 이번 BT의 미국시장참여를 요구한 FCC신청은 상호주의를 내걸어 영국시장참여를 요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생각하였다. 경쟁이 격렬한 미국시장과 달리 영국시장에서는 BT가 압도적인 지배력을 갖고 있어 BT망과의 접속조건과 요금을 BT가 결정한다. 이러한 BT가 미국시장에서 전용선으로 미국사업자를 우회하여 서비스(1억8000만달러 규모)를 제공하겠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영국 무역산업성은 「AT&T가 미국에서 영국기업에 주어지는 것과 동일한 기회를 영국에서 미국기업에게도 주어야한다는 것으로 본다」고 환영하고 있다.

BT는 「AT&T의 참여는 경쟁을 격화시키지만 동사의 FCC에의 신청이 인정되면 이를 지지한다」고 밝히고 AT&T의 참여로 가장 영향을 받는 머큐리는 BT의 영국내망과의 접속교섭의 어려움이 해결되고 기타 전기통신기업도 AT&T가 BT의 영국시장내 지배력을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AT&T의 움직임에 대해서 MCI와 스프린트의 양사는 영국시장의 폐쇄성을 문제로 하기 때문에 반대하지 않았다.

## 2. AT&T의 申請內容

AT&T는 지난 4월15일 영국시장에의 참여를 위해 DTI(영국무역산업성)와 FCC에 인가신청을 하였다. FCC에 대해서는 미영간의 국제전용선 단순재판매인에 필요한 214조 신청이고 DTI에 관한 신청은 다음 4가지이다.

- ① 미영간및 영국이 이미 국제단순재판매를 승인하고 있는 지역(캐나다, 스웨덴, 호주)과의 국제단순재판매

- ② 국제전용선의 용량판매(고속디지털회선을 중심으로 한 회선분할판매)
- ③ 기존의 영국사업자가 제공하는 국제교환서비스의 재판매
- ④ 공중전기통신사업자로서 영국내의 장거리통신서비스

이외에 AT&T는 영국내의 기업을 대상으로 가상사설망서비스를 제공하고 아울러 고속 디지털 전용회선의 재판매를 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러한 BTNA에 대한 AT&T의 대응은 매우 적극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만약 BTNA가 이미 제출한 신청을 취하한다고 해도 AT&T는 영국시장에의 진출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AT&T는 BTNA가 신청한 미영간 국제단순재판매 신청을 기각하거나 최소한 보류하도록 FCC에 청원하였다. AT&T는 비록 DTI가 영국시장참여를 인가하더라도 FCC에 대한 이 청원을 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즉 DTI로부터 인가를 취득하고 BT나 Mercury가 보유하는 국내공중망과의 상호접속이 실현될 때까지 BTNA의 미국내 서비스제공을 늦추어 엔드 투 엔드의 국제통신서비스 제공에서 동등한 조건에서 사업을 시작하기를 바라고 있다. 한편 BT는 AT&T의 영국시장 참여신청을 환영하며 자사가 미국내에서 AT&T와 동등한 권리를 가질 수만 있다면 이를 지지한다고 발표하였다.

### Ⅲ. 글로벌네트워크서비스의 現況

#### 1. World Partners(AT&T, KDD)

이 그룹은 AT&T의 주도로 일본의 KDD 및 싱가포르 텔레콤과 제휴하여 다국적 기업대상의 글로벌 N/W를 구축하기 위하여 「World Partners」라는 컨소시엄을 설립, 「World Source」라는 이름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이를 위해 미국 뉴욕에 「World Partners Companies」라는 운영지원조직을 설립한다. 미국 및 아시아 뿐만 아니라 향후 유럽에도 진출하여 윈스톱쇼핑서비스에 의해 글로벌한 N/W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AT&T, KDD 및 싱가포르텔레콤은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자금이 약 1억\$로 보고 AT&T가 50%, KDD가 30%, 싱가포르텔레콤이 20%의 비율로 출자한다. 또, 본 컨소시움에는 출자하지 않아도 컨소시움이 요구하고 있는 서비스나 기술요건을 만족하고 있으면 준가맹기관으로서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이미 오스트레일리아의 텔스트라 (AOTC), 한국의 KT 및 캐나다의 유니텔 등의 참여가 결정되었다. 이들 통신사업자들은 서비스 재판매를 위한 요금을 컨소시움에 지불하기로 되어 있다.

앞으로 독일, 프랑스 등 주요국의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EUNETCOM 등의 국제합작회사에 컨소시움 참여를 유도하되 참여를 얻지 못해도 AT&T 독자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가. 사업내용

컨소시움은 초국적기업용으로 「World Source」라는 브랜드명으로 국제음성 데이터서비스를 원스톱쇼핑서비스에 의해 제공한다.

제공하는 서비스는 ① end to end 의 전용선, ② 가상네트워크(Vnet), ③ 프레임 릴레이에 의한 데이터서비스의 3종류이다. 이들 서비스를 ① 국경을 초월한 동일품질의 서비스, ② 24시간 수리보수체제, ③ 포괄적인 망관리, ④ end to end의 일관된 서비스, ⑤ 조건부 서비스에 대한 품질수준의 보증, ⑥ 원스톱쇼핑서비스를 패키지로 판매한다.

컨소시움에 참여하는 통신사업자는 서비스의 수주, 제공, 회선의 보수 및 요금의 청구를 단일한 창구에서 접수하는데, 청구서에서 사용하는 언어나 통화는 기업의 요구에 따른다.

가상사설망(VPN)서비스는 서서히 Software Defined Network (SDN : AT&T가 제공하고 있는 VPN)서비스로 변환해갈 예정이다. 향후 인텔리전트 N/W의 기능도 갖게 하며, 700번 퍼스널 넘버, 800번 프리다이얼 및 900번 유료정보안내의 각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나. 서비스지역과 제공시기

서비스제공시기는 미국이 1993년 가을, 아시아 태평양지역이 1994년초, 또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 9개국에서는 1994년중으로 되어 있다. 또 중남미나



다른 지역에 대한 서비스 제공도 앞으로 실시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월드소스」는 유럽주요제국의 전기통신사업자의 참여를 얻지 못해도 각국의 공중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회선을 리스하면 서비스제공이 가능하므로 유럽각국의 규제에 저촉되는 일은 없다. 따라서 참여기업이 없어도 AT&T는 계획대로 서비스를 시작하기 위하여 유럽지역에 대해 5년간에 3억 5,000\$를 출자하여 멀티플렉서, 프레임 릴레이교환기 및 요금징수처리시스템 등을 설치하여 서비스 제공의 기반을 구축하고 앞으로 유럽지역에 600명의 기술자를 배치할 예정이다.

#### 다. 사업전망

AT&T는 이미 미국의 다국적기업으로부터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월드소스」 가입신청을 받고 있다. 하니웰, 모토로라, 유니시스, 굳이어 등의 7개사이며, 이 중 5개사가 VPN서비스를, 모토로라가 고속 데이터서비스를, LSI로직이 프레임릴레이를 각각 이용할 예정이다.

글로벌네트워크의 VPN서비스에 정통한 관계자는 이번 AT&T의 국제제휴는 동사의 국제적 입장을 이제까지 이상으로 강화하여 이에 대응하려면 상당히 강력한 전기통신운영사업체끼리의 제휴가 필요하다. AT&T의 서비스 내용, N/W 관리와 지원 및 다양한 요금시스템은 세계에서 가장 고도의 서비스로, 특히 글로벌 VPN의 표준화에서 AT&T는 앞으로 유리한 입장에 설 것이다.

## 2. GNS/ Syncordia(BT, MCI)

영국의 BT와 미국의 MCI는 전기통신시장의 글로벌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자본제휴를 추진하는 한편, 다국적기업대상의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합작회사를 설립한다. BT는 MCI의 주식의 20%를 43억달러에 취득하는 한편, MCI와 함께 10억달러규모의 국제합작회사를 설립한다. 국제통신서비스시장에서 BT는 제 2위, MCI는 제 4위로 양사의 전기통신수입을 합치면 약 300억\$가 되어, 제 1위인 AT&T의 통신서비스 수입의 396억\$에 근접하게 되어, 앞으로 글로벌서비스는 물론, 미국에서의 서비스에서도 AT&T와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이다.

가. 제휴내용

첫째, BT는 MCI의 주식 20%를 취득한다.

주식은 1주당 64\$ (최근의 MCI 주가에 21%의 프리미엄 붙임), 총액 43억\$로 매수하고 금년 6월초순에 4.9%의 우선주식 (보통주로 전환가능)을 8억 3,000만\$로 취득한다. 앞으로 주주와 규제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최종적으로 계약이 성립하는 것은 1994년이 될 것이다. 또한 MCI는 BT의 북미현지법인인인 BT 노스 아메리카의 사업 (BT의 글로벌 데이터통신 N/W, 「타임네트」를 포함)의 대부분을 1억 2,500만\$에 취득하고 BT는 MCI의 임원회의(15명으로 구성)에 3명의 임원을 파견, 또 MCI 의장은 BT의 임원회의에 참여한다.

둘째, BT와 MCI는 국제적인 합작회사를 설립한다.

출자총액은 10억\$이고 출자비율은 BT가 75%, MCI가 25%이다. 사업내용은 전세계의 다국적기업에 대해 MCI의 Vnet를 포함하는 고도의 인텔리전트 N/W에 의해 연속적이고 글로벌한 규모의 고성능 음성 및 데이터서비스를 제공한다. BT의 신코디어 (1991년에 설립된 다국적기업용 글로벌 아웃소싱서비스회사)를 중심으로 사이크론 (BT의 글로벌 VPN)을 흡수하여 사업을 운영한다.

사업부문은 N/W 운용, N/W 관리 및 연구개발의 세부문이고 판매 및 마케팅은 BT 및 MCI가 각각 자신의 지역을 담당하도록 한다. 종업원수는 처음에는 1,000명, 그후 3,000명으로 늘릴 예정이다. 양사에 공통되는 아키텍처에 따라 고품질의 제품이나 소프트를 합동으로 연구·개발하고, 앞으로 동남아시아지역에서는 새로이 제휴상대를 확대할 계획이다.

나. 사업추진

국제통화나 국제전용선등의 기본적인 서비스는 종래 그대로 상대국과 개별적으로 처리한다. 또 이들 상대국과의 협정은 기존대로 유지된다. 따라서 미국 영국간의 국제통화의 대부분은 앞으로도 미국측은 AT&T가 취급한다. 그러나, 양사는 각각 신규합작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공통의 브랜드명으로 판매한다. MCI는 북미와 중남미제국, BT는 그 밖의 유럽, 아시아, 태평양지역을 담당하되 판매는 양사가 협력한다.

또한 이번 담당시장의 할당에 따라 이미 양사가 각각 진출하고 있는 외국시장에 대한 조정이 필요해진다. BT는 MCI가 소유하고 있는 뉴질랜드의 신규참여 장거리통신회사, 크레아 커뮤니케이션의 주식 24.5%를 매수하는 것이 거의 결정되어 있다. 그러나, 호주의 국제재판매업자인 AAP (Australia Associated Press-communication)의 주식(20%)이나 금융기관대상의 국제적인 N/W 회사인 FNA (Financial N/W Association)의 주식(8%), 또 BT의 타임네트와 유럽과 동남아시아에서 경쟁하고 있는 인포네트의 주식(25%)의 처리문제는 미정이다.

#### 다. 사업전망

BT는 이제까지 북미시장 참여를 노리고, 신코디어의 설립, 사이클론 프로젝트 추진, 맥코 커뮤니케이션출자에 의한 휴대·자동차전화서비스시장 참여나 북미 현지법인에 의한 국제전용망시장 참여 등을 추진했으나, 기대한만큼의 성과를 올리지 못했다. MCI를 통해 본격적인 미국시장 진출이 가능해짐과 동시에 발전가능성이 큰 북미기업통신망(아웃소싱)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는 외에, MCI의 VPN등의 새로운 서비스에 의해 판매품목도 확충할 수 있다. 이 결과, 신규업자의 영국시장 참여에 따른 시장점유율의 저하분을 국제전화시장에서 다시 만회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다.

한편 MCI는 국제전화시장에서의 입지가 튼튼한 BT와의 제휴로 기업의 요구에도 보다 잘 따를 수 있게 되어, 성장율이 높은 국제시장에서의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BT로부터 주식매각대금으로 받는 43억달러가 유입됨에 따라 미국의 장거리통신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가 가능해진다.<sup>5)</sup> 또한 경쟁접속사업, CATV/전화시스템에 의한 정보및 오락 서비스, PCS에 참여를 고려하고 있으며,

5) 현재 장거리통신수입의 44%는 접속료로서 시내전화회사에 납입되므로, 앞으로 요금을 인하하려면 CAP, CATV, PCS 등 시내전화회사를 바이패스하는 사업에 대한 출자·제휴를 전화접속요금을 절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특히, AT&T에 의한 맥코 커뮤니케이션(미국 휴대·자동차전화서비스업계 제 1위)의 매수는 시내전화회사의 바이패스에 대한 움직임으로서 위협을 느끼고 있었다. 또한, BT가 MCI에 지불하는 주식대금의 일부에는 1989년에 취득한 맥코 커뮤니케이션의 주식 22%(시가 17억 5,000만\$ 상당)를 AT&T에 매각하여 얻어진 현금이 포함되어 있어 AT&T의 자금이 MCI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데이터전송서비스, N/W 관리분야에도 힘을 쏟을 수 있게 되었다.

BT와 MCI는 모두 이번의 제휴내용은 규제상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고 있다. MCI는 BT의 출자비율은 20%로서 미국의 외자출자비율의 한도 25%를 하회하므로 문제는 없으나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FCC에 신청할 뜻을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FCC는 이번의 제휴로 인해 외자가 미기업에 도입되어 MCI를 강화함과 동시에 외국시장에 대한 진출을 증대시켜 AT&T와의 효과적인 경쟁을 가져오기 때문에 환영하며, 규제상의 문제가 있는지는 앞으로 충분히 검토한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sup>6)</sup>

한편, BT는 OFTEL과 EC위원회에 승인을 요구할 계획인데, OFTEL은 영국시장에 직접 영향을 줄 것으로 보지 않고 있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MCI에 따르면 신규합병회사는 당초 2~3년은 적자일 것이나, 그후는 세계의 대기업을 고객으로 하여 사업의 확대에 따라 흑자가 되어, 신회사의 수익에 기여할 전망이다. 또한 유럽의 유네트콤이나 그 밖의 글로벌한 전기통신회사등과 협력협정에 대해 타협중이다.

이상의 World Parteners와 GNS /Syncordia를 포함한 주요 글로벌네트워크의 제휴그룹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하여 나타낸 것이 <表 2>, <表 3>이다.

---

6) 미국내의 반응을 보면, 우선 미국하원전기통신소위원회 마키 위원장은 BT의 자본에 대한 직접투자는 미·영 양국의 시장참여에 대한 자세에 관한 문제를 환기시키고 있다고 보고 FCC가 BT의 신청을 수용하기 전에 영국이 미기업에 부과하고 있는 장벽을 제거하였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AT&T는 BT가 미국시장에서의 기반을 더한층 확충하려고 하는 의도가 분명하며 영국정부는 MCI와 BT와의 제휴로 얻어지는 것과 같은 자유를 AT &T에게도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스프린트는 고객을 위한 제휴는 필요하나, 국제전략을 모두 외자의 관리아래 두는 것에는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영국전기통신 매니저협회는 MCI와의 거래가 글로벌한 전기통신서비스를 확대해 가는데 있어서 BT의 지위를 강화하게 되므로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表 2〉 주요 글로벌네트워크의 제휴내용(I)

서비스 제공회사 또는 협력관계	Syncordia	WorldPartners(협력관계) WorldSource(서비스)	Unisource	EUNETOM
참여 통신사업자	BT, MCI	AT&T, KDD, 싱가포르·텔레콤(ST)-간사회사. 한국통신(KT), 텔스트라(호주), 유니텔(캐나다)가 참여결정완료	네덜란드PTT텔레콤, 스웨덴·텔레콤, 스위스PTT(1/3씩 출자)	독DBP텔레콤, 프랑스·텔레콤(50%씩 출자)
설립 /제휴시기	91년 9월(신코디아 자펜은 91년 12월 설립)	93년 5월에 기본합의, 서명	진신 Unicom 91년 10월에 설립	92년 3월에 설립합의, 93년 6월에 정식조인
서비스내용	① managed link : 전용선제 판매 (대역변경가) ② managed private network service(MPNS) : 전용선을 N/W로서 판매 ③ network operation management service(NOMS) : 국제 N/W를 모두 위탁. 유저 독자의 N/W도 포함, 통합관리. 기기, 인력도 제공 모두가 BT가 개발한 N/W 관리시스템「Concert」에서 24시간체제로 감시함.	① 전용선서비스 : 친구간에 걸쳐 회신품질을 상시감시. 이상발생시에는 즉시 예비회선으로 전환 ② VPN서비스 : 국제내선 전화서비스 신규이용, 거점중설시에 등록내선전화번호의 추가·변경, 그 밖의 절차를 1곳에서 하나의 사업자를 창구로 하여 실행 ③ 프레임·릴레이·서비스	① Unistream : 전용선서비스(대역변경가) ② Unidata : 패킷교환, 프레임·릴레이, LAN간접속, IP서비스, SNA서비스 ③ Uniplus : FAX축적교환, 전자메일, X.400, EDI ④ Unimaster : 기입 N/W 구축, 퍼시리티·패니지먼트, 아웃소싱 Unical(국제VPN)의 제공도 검토하고 있다	국제데이터 전송서비스외에 대기업용으로 윈스톱·쇼핑, N/W·아웃소싱·서비스를 제공함. 1년이내에 서비스 시작할 예정. 우선 국제데이터전송서비스 패킷교환과 프레임·릴레이, 이후 VPN서비스(음성+데이터)를 추가한다. 우선 유럽에서 시작하고, 미일을 포함한 전세계로 확대한다. 단, 서비스내용은 미정
특 징	문의창구나 요금창구/지불의 일원화는 물론, 통신회선의 통합적인 지원센타를 뉴욕에 설치함. 명칭은 「World-	유럽의 중규모 통신사업자가 제휴. 유럽의 주요도시에	유럽의 중규모 통신사업자가 제휴. 유럽의 주요도시에	DBP텔레콤에 BT로부터 Syncordia에 대한 참가요청. 또, 프

서비스 제공회사 명 또는 협력관계	Syncordia	WorldPartners(협력관계) WorldSource(서비스)	Unisource	Eunetom
특 징	통신기기, 운용/감시를 중 합적으로 제공하는 완전 아 웃소싱 서비스. 통신사업자 간의 제휴로는 한계가 있다 고 판단하여 전문사업회사 「Syncordia」를 설립하고 있 다.	Partners Companies」. 사 업자 상호간의 요금정보제 공, 품질기준, 통일브랜드, 장해부구절차등을 관리·조 정한다. 당초40명, 3년후에 100명으로 증원	노드를 설치완료, 일본, 미 국에는 서비스지역을 확대 할 예정. N/W관리 센터를 네덜란드와 스웨덴에 설치. 유저에 대한 장해대응이나 서비스상황의 보고, 회선 규 격의 변경, 요금정보등을 일 원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망스·텔레콤은 Syncordia에 대한 참가에 흥미를 보이고 있 다. 단, 이들 2사가 각각 단독 으로 참가해서는 주도권을 BT 에게 뺏겨 버릴 우려가 있어, 제휴관계를 강화, 발언권을 높 이려는 목적이 있다고 보여지 고 있다.
서비스시작	91년 9월	전용선/VPN은 93년 11월. 프레임·릴레이는 94년 1~2 월	92년 9월(스웨덴, 독일, 영국, 네덜란드). 이후 지역을 확대	94년 초에 유럽에서 서비스시 작
유저(예정포함)	Amadeus(여행예약정보시 스템), IBM Europe(컴퓨 터) BP Chemicals(화학), Firmenich(식품용향료)	Good Year Tire & Rubber (타이어제조), Honeywell (컴퓨터), LSI Logic(반도 체), Motorola(통신기기), Paine Webber Group(증 , Unisys(컴퓨터), Unites Parcel Service(우편소포)	COSINE(전유럽의 연구기 관 N/W : EuropeNET), Eufiserv(유럽저축은행협 회) 등, 약 10개사	
비 고	93년 5월에 BT가 MCI에 20%출자. 쌍방이 75%, 25% 씩 출자하여, 신회사를 설립 함. 미Syncordia는 이 사회 사에 흡수될 예정	유럽, 아시아의 통신사업자 에 참여를 타진중. 유럽에서 는 프랑스·텔레콤, DBP텔 레콤에도 요청하고 있다.	네덜란드PTT텔레콤과 스 웨덴·텔레콤이 전신 Uni- com 설립, 그후 Unisource 로 명칭을 변경했다. Uniso- urce 지주회사. 운용회사에 는 Unisource Business Network와 Unisource Sat- ellite Services의 2사가 있 다.	양사에 WorldPartners에서 참가요청. 새로운 제휴에 대 해서는 검토중. 또, 94년에 일 본에 진출할 계획. DBP텔레 콤 일본법인인 독일텔레콤은 특별제2종전기통신사업자로 서 우정성에 등록완료(93년 4 월)

〈表 3〉 주요 글로벌네트워크의 제휴내용(Ⅱ)

제휴관계	JNI (Joint Network Initiatives)	GVPN (Global Virtual Private Network)	FNA (Financial Network Association)
참가사업자	AT&T, KDD, BT, 프랑스·텔레콤, 텔레포니카(스페인)의 5사	홍콩텔레콤, 국제디지털통신(IDC), 머큐리(영), 네덜란드PTT텔레콤, 스프린트(미), 스웨덴·텔레콤, 텔레그로브·캐나다, 텔스트라(호), 유니텔의 9사	텔스트라(호), KDD, RTT(벨기에), STENTOR(캐), 프랑스·텔레콤(프), DBP 텔레콤(독), 홍콩텔레콤, 이탈리아브레(이), 싱가포르·텔레콤, 텔레포니카(스페인), 머큐리(영), MCI(미)의 12사
내용	91년 5월에 개시. 기업의 국제 N/W의 설계, 보수, 운용시에 참가통신사업자가 공동으로 지원한다. 그를 위해, 상세한「절차서」를 준비하고 있다. 세계의 통신사업자가 제휴하여 윈스톱·쇼핑·서비스를 제공. 단, 유저는 일본통신 1사에 그치고 있다.	90년 6월에 설립. IDC는 93년 5월에 참가. 노던·텔레콤제의 교환기를 이용하고 있는 통신사업자가 동일규격으로 국제 VPN 서비스를 제공. 구런던에 GVPN 글로벌·서비스·센터(GSC)를 설치하여 유저의 번호계획작성, 통신사업자간의 조정을 행하고 있다. 음성 및 56k/64k 비트/초 회선교환을 제공하고 있다.	세계에 거점을 가진 금융기관의 N/W 구축을 지원하는 프로젝트. 각 통신사업자간의 조정·원조를 행하는 운영법인을 92년 3월에 벨기에에 설립하고 있다.

#### IV. 向後展望

이상과 같은 거대 통신기업간의 제휴는 기본적으로 초국적기업들의 수요변화에 따른 대응이라고 볼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국제통신사업자들의 경쟁환경의 변화도 그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최근 유럽에서는 규제완화가 급속하게 진행되어 궁극적으로는 완전자유화로 나아갈 것으로 보인다.<sup>7)</sup> 기존음성서비스 자유화에 앞서서 단순재판매서비스 자유화

7) 이형교, 「EC 전기통신자유화계획」, 『통신정책동향』, (93.8.16) 참조

를 1998년부터 실시하기로 함에 따라 지금까지와 같은 단순한 회선재판매에 의존하는 것은 타국의 통신사업자와 재판매업자에게 시장을 빼앗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이 바로 윈스톱 쇼핑이나 아웃소싱 개념을 도입하여 서비스에 부가가치를 높혀 기존 고객의 이탈을 방지하는 것이다.

이번의 제휴는 21세기의 글로벌전기통신서비스에 확고한 지위를 구축하려면 국경을 초월한 제휴가 필요하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줬으며 이를 계기로 세계의 대규모 전기통신사업자간의 제휴 또는 합병은 점점 가속화될 것이다. 또한, 기업에게는 세계 규모의 전기통신사업자의 통합에 따라 서비스 내용이 확충되어, 혁신적인 고도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음과 동시에 경쟁격화에 따라 요금의 인하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통신이 World Partners에 참여함으로써 통신사업의 국제화흐름에 부응하고 있으나 아직 미흡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21세기에는 소수의 국제적인 거대사업자만이 생존할 것이라는 예측이 상당한 설득력을 갖고 있다고 볼 때, 국내 통신사업자의 적극적인 제휴전략이 요구된다 하겠다.

### 〈참고문헌〉

1. KDD, 『世界のテレコムニュース』, No.267(93.5.1) / 271(93.7.1)
2. 『NIKKEI COMMUNICATIONS』, 1993.8.16
3. 『KDD R&A』, 1993.6
4. 『海外電気通信』, 1993.7
5. *Telcom Markets*, June 10, 1993
6. *L.A. Times*